

---

# 2020년 제34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8. 14. ~ 8. 2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8. 14.	시청률	0.001

### 【총 평】

‘광복 75주년,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연다’는 광복75주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미래를 여는 역사 교육, 역사를 매개로한 남북협력관계까지 내다본 기획력이 탁월했다. 광복절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8.15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미래과제를 살펴보는 소재가 시의적절했고, 올해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자 광복군 창설 80주년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 과제’로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할 교육, 남북통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지향점이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이었다. ‘역사를 매개로 한 남북협력 방안’으로 북한정권 이전 역사를 공유하고 근현대사 역사를 공동 발굴함으로써 남북협력의 매개체를 찾자는 의제설정이 창의적이었다.

### 【구성 및 내용】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을 화두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완전한 자주독립의 의미’, ‘사회통합의 필요성’ 그리고 ‘친일청산’ 등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았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후손인 독립기념관장에게 독립기념관의 조성 의미부터 역할, 그리고 독립운동과 광복, 아직도 이어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에 대한 비판 등을 들었다.

첫 번째 주제인 ‘8.15 광복 75주년, 역사를 되새기다’에서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소개와 탄생,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광복절을 맞는 느낌을 들어보았다. 두 번째 주제인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에서는 광복 75주년 행사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는 독립기념관 소식을 전해주었다. 세 번째 주제인 ‘일본의 역사 왜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 대처와 미처 이뤄지지 못한 친일청산,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마지막 주제인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에서는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위한 독립기념관의 활동과 역사를 매개로 한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열을 안타까워하면서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독립군 병사와 그 가족 그리고 당시 만주 동포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식민지근대화’란 왜곡된 역사관이 자라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청산’이 필요함을 강조한 부분은 오늘 대담의 핵심이었다.

독립기념관에서 VR체험존을 만들어 체험을 통한 청소년 역사교육에 힘쓰고 있고 코로나 언택트 체험교육용 교재를 보급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절한 대처법으로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8. 14.	시청률	0.018

### 【총 평】

단박톡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방법과 전망’으로 하반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을 넘으면서 대북정책에 관한 평가와 점검을 해보며,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 등 새로운 국가안보 외교라인의 교체와 더불어 향후 남북관계 및 미국과의 관계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의견부분에서 좋아요와 싫어요,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쌍방향 소통과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한 제작의도를 보여주었다. 북마크TV는 경제난 속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여름철 사회운동?’을 방송했다.

### 【구성 및 내용】

북한의 실정은 대북제재와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가붕쇄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영유아와 여성들을 위해 우리정부에서 식량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의견들 예시는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들이었고 반대의 의견인 북한에 매번 당하듯 끌려가고 퍼주기만 한다는 부분도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근본적 이유는 결국 각국의 자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이라고 통일연구원장은 말했다. 통일연구원장은 남북 간 역사적인 사건들로 남·북·미 평화 물꼬를 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건부 비핵화와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꼽았다. 또, 통일부의 통 큰 대북 지원 추진 계획 등은 정치·군사적 시각이 아닌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필요 하는 이유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이지만 결국 우리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행복함을 위함이라는 메시지에 공감되었다.

북마크TV는 “경제난 속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여름철 사회운동?’을 소개했는데, 북한중앙TV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여름 캠페인’은 인민소비품생산 캠페인이다.

인민소비품생산 캠페인은 경제 활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왕골 제품, 북한에 유행하는 꽃무늬 여름철 의상, 남성과 여성의 여름 옷차림 등으로 여름철 소비를 독려해 생산과 소비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경제난과 대북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업을 강조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자율적인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게 하는 북한의 자구책임을 잘 보여주었다.

북한에서 주력 생산하고 있는 인민소비품으로 왕골이나 라탄으로 만든 가방 및 모자 등을 여름철 제품은 튼튼해 보이지만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8. 16.	시청률	0.001

## 【총 평】

“일본 수출규제 그 후”는 풀리지 않는 한·일 간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지난 1년을 통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얻었으며, 민·관의 하나됨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본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본 수출규제 그 후,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논리의 근거를 제시한 구성으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매우 적절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이하여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정리해 보는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갔는지도 살펴보면서 현재 진행중인 WTO 제소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잠시 잊어버렸던 사안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해주었다.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의미도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생활 속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선언한 뒤 반도체 산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소재를 국산화했는지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되짚었다. 또, 창원시가 소재 부품 업체를 지원한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위주로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개했다. 끝으로 일본 무역 규제에 대한 WTO 제소 경위를 살펴보고 소청을 재개하게 된 배경과 함께 제소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 중인 서울 강서구 주부와 국내에 진출한 일본 브랜드 타격 사례, 그리고 일본 여행에 대한 국민 정서, 반도체의 주요 3대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가 줄어듦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자체 생산의 청신호가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기업 지원 및 세금혜택, 국산화를 통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품목의 공급망 돌파구 찾기, 소재 공급망의 현실적 대체 어려움, 경남 창원시의 위기 돌파 모범 사례와 민·관·연구원·기술원이 네트워크화 된 지자체 차원의 발 빠른 대처였다.

지난 19년간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역대 정부가 쏟아 부었는데도 진척이 없었는데 국산부품화에 성공한 것은 변화를 주저하던 국내 기업들의 변화 의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정부의 대응지원센터로 대처 성공,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2.0 정책,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 촉구안과 입장 발표한 우리 정부, WTO 분쟁 재개와 분쟁 핵심,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절차 추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으로 인한 일본의 2차 보복조치 예상 등이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8. 16.	시청률	0.198

### 【총 평】

'바나나'와 함께 사'노니'는 제주로 귀농하여 감귤 농사를 짓다 전남 강진으로 재귀농하여 3년째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아직 바나나 농사가 미흡하고 판로가 미비하지만 언젠가는 강진, 완도 등의 남쪽 지역에서 바나나 농장이 많이 생겨 국민들이 진짜 바나나 맛을 느껴보게끔 하는 농부의 꿈을 전해주었다.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열대과일인 바나나와 노니 재배에 도전하는 귀농 6년차 50대 농업인의 시행착오와 좌충우돌 열정이 그려졌다. 우리 토양에서 기르기 쉽지 않은 열대작물 바나나 재배에 뛰어든 부부의 열정과 열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동료 귀농인에게 재배기술을 알려주며 남부지방에 바나나 재배를 확산시키고 바나나 농업의 장단점과 애로사항 등을 정보를 후발주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미생물 활용 액비 사용, 무농약 재배, 바나나잎으로 바나나포장 등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인공의 영농 소신이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 【구성 및 내용】

전남 강진에서 바나나농장을 운영하는 귀농 6년차 부부는 김포에 살다가 2015년 제주로 귀농하여 감귤농사를 하다 강진으로 선진지 견학을 오게 되었는데 기후도 좋고 일조량이 좋다 보니 과일, 과채류 농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강진으로 다시 재귀농을 했다.

아직 바나나 농사는 미흡하며 판로가 많이 없어 수확을 미루다보니 바나나가 먼저 익어버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도 허다하다. 국내산 바나나는 미리 따서 후숙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다 익혀 출하시키다 보니 이런 일이 더 흔하다. 수확한 바나나는 아내에 의해 바로 포장에 이뤄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들어간다. 택배작업은 세심하게 이뤄지는데 여름의 경우 금방 짓무르고 익기 때문에 녹색상태에서 해야 한다.

특히, 바나나 농업은 시설비와 난방비 등 초기자본이 많이 든다는 점, 저장성이 낮아 수확 후 바로 팔아야 하는데 판로난이 문제라는 점을 알려주어 후발주자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했다.

또, 유기농의 일환으로 판매하기 힘들고 오래된 바나나를 이용하여 액비를 직접 만들고 있다. 바나나와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배합하여 만든 액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해주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모습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바나나 농장을 위한 열대성 작물 농장을 만들다보니 노니나무를 더불어 키우고 있다. 노니는 기능성이 뛰어나 도전하고 싶은 작물 중 하나이다. 이제 100수 정도 키우고 있다. 강진, 해남 군 등에서 바나나농장이 점차 생기고 있다. 그들과 함께 남쪽 지방에서 국산 바나나 재배의 확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짜 바나나의 맛을 전해주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전남 강진으로 재귀농해 늦둥이 딸과 부부가 바나나잎 보쌈을 요리해 단란하게 식사하는 풍경이 그려져 '소확행'을 느끼게 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8. 18.	시청률	0.003

## 【총 평】

<국민리포트>는 ‘휴가’와 ‘이색’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선물세트 프로그램이다. 특히 시의성에 잘 맞는 캠핑에 관한 리포트, 나라꽃 무궁화, 셔터 갤러리, 직업 훈련 등 각각의 리포트가 전달하고자 메시지가 확실히 살아 있었다. 특히, 캠핑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차박 매너를 비중있게 다루었고, 눈요기 정도로 다룰 수도 있는 무궁화 전시회나 셔터 갤러리를 통해 애국심을 자극하고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더욱 좋았다.

## 【구성 및 내용】

### ■ “안전 최우선 ‘언택트 여행’... 차 캠핑 ‘차박’ 인기”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차박 캠핑에 대해 소개하고 안전수칙과 차박 매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차박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잘 부각이 되었고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차박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캠핑족들의 실태를 꼬집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게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한 것 같다. ‘리브 노 트레이스’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해서 시사성도 있었다.

### ■ “나라꽃 무궁화 매력에 빠져...곳곳 화분 전시”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여러 공영지에서 열린 무궁화 전시회를 소개했는데 각양각색의 색깔과 모양을 자랑하는 무궁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강조되었다. 특히 해남 공영 주차장에 마련된 33그루의 무궁화나무와 민족 대표 33인의 이미지를 오버랩해서 연출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거창한 활동은 아니지만 나라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발벗고 나선 무궁화 장인의 모습이 오랜 여운을 남겼다.

### ■ 기술 배워요...도배·타일 학원 물린다

도배와 타일 공사 기술을 배워 정년과 은퇴이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배움의 현장 소식을 전달했다. 국비로 지원되는 도배 타일 기술 학원의 운영 과정을 소개하고 학원을 찾은 수강생들의 포부를 소개했는데, 도배와 타일 실습을 하는 과정이 꽤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었고 이 과정에 참여한 여러 연령대의 참가자들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 ■ “을지로 ‘셔터 갤러리’...이색 명소로 뜬다”

을지로 공구상가가 셔터 갤러리로 변신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공구상가의 삭막함이 셔터 갤러리로 변신해 도구를 만지는 상인과 기술인들의 아름다움이 잘 묻어났고, 깔끔한 거리와 공구업계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등 특색 있는 셔터 갤러리 거리를 섬세하게 잘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8. 19.	시청률	0.000

### 【총 평】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 으로 ‘패닉바잉’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이를 진정 시키고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에 127만 가구 순차 공급, 집값 안정화 전망은?’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 규모와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왜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패닉바잉’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실태와 원인을 진단한 점이 공급계획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공공택지 물량 공급 계획을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으로 나눠 상세히 소개한 ‘디테일’이 돋보였다.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은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고, 많은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꼭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정부의 발표에 발맞춰 ‘수도권에 127만 가구 순차공급, 집값 안정화 전망’을 알아본 기획은 발빠른 시의성과 함께 정책알림이, 집값 안정유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청자 만족도에 기여한 기획이 탁월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내용을 권역별로 나눠서 자세하게 소개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전청약제’와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종합적인 ‘주택공급대책설명서’를 만들어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 집값 안정화 전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속성 방안에 대해 모색한 것은 유의미했으며 시의성 있었다.

서울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왜 패닉바잉 현상이 초래됐는지를 진단하고 그 대책으로 나온 서울 공공택지 물량공급 내용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 사전청약제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었는데 실수요자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안을 보여주며 서울 지역을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 물량 계획을 전하고 특성과 강점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 사전 청약제, 정비사업 공급 계획,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등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보고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현장 180도>는 충북 제천 수해복구 작업 현장을 소개하여 시의성이 높았으며, 공감을 자아냈다. 수해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어 심각성을 알렸으며,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봉사활동자들의 선행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위기 극복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8. 20.	시청률	0.000

### 【총 평】

수도관이나 하수관 또는 통신시설 등 수리 점검 통로인 맨홀 사고를 다룬 “반복되는 재해! 맨홀 안전사고”편을 방송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을 주제로 선정한 기획이 신선했고, 맨홀 제품, 소재, 관리지침, 맨홀 구조, 훈련 과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점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움과 흥미를 주는 구성이었다. 또 맨홀 안전사고 사례 소개는 반복되는 재해이자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시청자들에게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유익한 방송이었다. 맨홀에 대한 이해와 안전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방송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들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들을 차례로 다루면서 굉장히 참신한 내용을 선보이고 있는데, 일상에서 아주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정작 그 위험성은 잘 알지 못하는 맨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어 충분히 위험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제공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할수 있는 맨홀로 인한 사고의 반복되는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지침과 맨홀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철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시간이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맨홀 사고 유형과 안전 점검은 작업 인부가 맨홀 아래로 추락한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맨홀 사고의 위험성을 시사하고 제조 과정과 안전 점검 현장을 함께 다루었다. 길가던 행인과 운행중이던 차량이 당한 맨홀 사고의 유형을 소개하고 맨홀 정비 과정까지 함께 소개했고 맨홀 및 밀폐공간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소개하고 안전 점검 및 보건 교육 현장을 취재했다.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은 특히 여름철에 미생물 증식과 함께 유독가스가 가득차서 질식사고를 많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종종 맨홀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있다. 맨홀의 땅속 깊이 밀폐된 공간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맨홀 밖의 대기자를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서로 소통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이런 기본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맨홀 정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맨홀 단차로 인한 덜컹거림과 차량 파손으로 인한 민원제기에 의한 정비를 시작한다면 늑장 대응이다.

맨홀 사고가 여름에 특히 더 위험하다는 메시지와 그 근거를 차례로 나열한 부분이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고, 맨홀 사고라고 하면 추락 자체에 더 많은 무게를 두기 마련인데 질식 위험에 대해 다룬 점은 굉장히 좋았다. 또, 길을 가던 행인이 맨홀 물받이에 발이 낀 사고도 소개되어 공감을 얻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고 유형은 많을 것 같았고,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행인들의 부주의와 맨홀의 부식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할 것 같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